

노동소의 극복한 산업민주체제

이효재 교수 스페인 몬드라곤 방문기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노동자들이 공동출자·공동생산·공동경영하는 독특한 산업협동조합운동으로 이름난 곳이다.

최근 동유럽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위기론이 나오면서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과학계에서는 몬드라곤을 산업민주주의의 중요한 모델이자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대안으로 평가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함께 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효재 교수(전 이화여대 사회학)가 이번 여름, 이곳을 돌아보고 왔다.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동체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교수의 방문기를 싣는다.

〈편집자〉

내가 스페인의 몬드라곤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것은 지난해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화이트의 〈몬드라곤의 형성〉을 읽고부터였다. 50여년전 한 신부의 지도 아래 젊은 노동자 몇몇이 시작한 산업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려 가구·가전제품·기계류·자동차부품에서부터 로봇·반도체에 이르는 첨단제품을 전세계에 수출, 스페인 국가경제의 중추적 산업단지로 성장·발전한 과정과 그 동력을 화이트는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한 신부의 지도아래 태동

더구나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불황에 허덕일 때에도 몬드라곤만큼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고용창출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나는 놀라움과 함께 커다란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국내에도 신용조합·소비조합·농민생산조합 등의 협동조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자가 주인인 산업생산조합이 거대한 단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침 독일방문 초청을 받은 나는 일정을 마치자마자 작은 배낭 하나와 홍보담당자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장만을 들고 무작정 몬드라곤으로 향했다.

스페인 서북부 프랑스와의 접경지역에 있는 산악도시인 몬드라곤은 주민의 대부분이 분리독립투쟁으로 유명한 바스크족이다. 파리를 출발해 밤새 기차를 타고 국경도시 이룬에 이른 다음 다시 스페인 국내선 철도로 두시

간을 달린 뒤에야 몬드라곤에서 가장 가까운 비토리아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30분 가량 달리자 좁은 계곡 양쪽에 크고 작은 협동조합공장들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계곡을 벗어나자

노동자의 자주관리체제

첫 졸업생 가운데 공과대학까지 마친 다섯명의 제자들이 54년 회원을 모아 도산한 주물공장을 사들여 협동조합기업체를 만든

후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도심 광장에 우뚝 서 있는 오래된 성당이었다. 바로 몬드라곤의 정신적 지도자인 호세 마리아 아리엔데 아리에따가 1941년 처음 부임한 뒤 76년 사망할 때까지 주임신부로 있었던 유서깊은 성당이었다.

그는 43년 가난한 이지역 노동자가족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세우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이 소외되고 노사관계가 비인간화 하는 문제를 기독교의 사회이념으로 극복하려고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운동의 이념과 방법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올고는 현재 1백73개의 중소규모 단위협동조합 공장에 2만4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산업공단이 됐다. 노동자자주관리체제의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산업협동조합 집합체로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가장 성공한 산업협동조합

내가 두번째로 찾아간 곳은 몬드라곤 전체 단위생산조합의 35% 정도가 속해 있는 협동조합공단인 파고였다. 파고는 세계 70개국으로 수출되는 다양한 제품의 상표이기도 한데 제품에 따라 생산량의 35~70%까지 수출한다고 했다.

파고를 비롯한 산업협동조합의 조직운영방식은 먼저 회원들이 일정액수의 출자금을 모으는 데서 시작한다. 회원들은 누구나

단위협동조합 1백73곳...거대 산업공단

노동자들 공동출자 공동생산 공동경영...자본주의 이윤 추구



몬드라곤의 정신적 지주인 호세 마리아 신부가 41년부터 76년 죽을 때까지 주임신부로 있던 성당.

것이 운동의 모체였다.

이 조합의 이름 올고는 이 다섯 제자의 성에서 첫자를 모은 것이다. 부역의 취사용 가스난로를 비롯한 각종 난로가 첫 생산품이었다.

한표의 권리로 임기제 경영진과 사회위원회를 총회에서 선출, 구성하고 나머지는 노동을 담당한다. 출자금은 일단 은행에 저축하고 탈퇴나 정년퇴직 때에만 찾아갈 수 있다. 대신 해마다 출자



기혼여성들을 위한 도시락공장 입구에서. 이곳에선 하루 5천명의 점심을 제공하고 대중식당, 청소용역업, 청소용구 대여업도 하고 있다.

금에 따른 이익배당금과 이자가 통장에 입금된다.

모든 회원은 노동시간과 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받는데, 임금기준은 최저에서 최고가 1대3으로 평준화돼 있다. 최근에는 1대6으로 폭이 늘어난 곳도 있다. 긴 여행의 피로도 잊고 해질

었다. 협동조합 회원들의 사회복지지급금으로 67년부터 각 조합이 내고 있는 순이익 10%씩을 관리하는 공단사무실이 있다.

그 뒤로는 역시 각 협동조합들이 자본형성과 도산을 막기 위해 적립하는 위험기금(순이익의 25%씩)으로 창설한 노동자은행이 있었다. 현재 자산규모로 스페인의 3번째 은행 가운데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 옆으로 컴퓨터센터이자 산업연구소인 이케르란이 있었는데 반도체산업 등 첨단기술분야 연구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평등·참여민주주의 구현

이튿날에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여성들에 의해 조직·운영되고 있는 조합인 아우조 라군을 찾았다. 65년 기혼여성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세워진 이 조합은 도시락을 주문배달하는 일종의 서비스협동조합이다. 현재 4백여명의 여성회원들이 경영·노동·배달까지 도맡아 하루 5천명분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대중식당과 청소용역업·청소도구 대여업도 함께 한다고 했다.

몬드라곤에는 이밖에도 소비자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조직돼 생산조합과 유기적인 연대를 맺고 있다고 했으나 미처 둘러볼 여유가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비록 ‘수박 겉 핥기’식이었지만 몬드라곤은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평등과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최대한 살린 경영으로 노동의 소외를 극복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짧은 경험을 적어보았다.

무렵까지 거리를 돌아본 나는 파고와 같은 공단 외에도 여러가지 협동조합 관련 기관이 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자동차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 언덕 위로는 지난 10여년 사이 지은 듯한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개인 건축회사가 지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5개의 건축조합과 17개의 주택협동조합에 의해 건설됐다고 했다.

소비자협동조합도 다양

도로 왼쪽 산언덕쪽으로는 호세 마리아 신부 이름을 딴 공업기술학교가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은 공과대학으로 확대 발전한 이 학교 뒷쪽에는 4백~5백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산업협동조합이 보였다.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뒤 일정시간 일을 해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산학협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보다 조금 높은 언덕에는 라군 아로라는 간판의 건물이 보